

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이력서 4 대 원칙

목차

- ① 원칙 1— 이력서의 유일한 목적은 면접 기회를 얻는 것
- ② 원칙 2— 리쿠르터를 감동시키는 성과 정량화
- ③ 원칙 3— 자신을 빛나게 하는 정보만 포함하기
- ④ 원칙 4— 형식과 관습을 유리하게 깨기
- ⑤ 실전 해킹— 이력서 세부 팁 모음

원칙 1

이력서의 유일한 목적은 면접 기회를 얻는 것

이력서는 합격통지서가 아님

- 이력서가 곧바로 채용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음
- 이력서의 **유일한 역할**: 리쿠르터가 "이 사람을 더 보고 싶다"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
- 면접 과정에서 실력과 인성이 합격을 이끌어 감
- 이력서는 단지 **면접의 문을 여는 열쇠**임

리쿠르터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초

- 리쿠르터는 바쁜 사람 — 이력서 검토 시간 10초 이하
- 짧고 임팩트 있는 이력서가 필수임
- 경력 10년 미만: 반드시 1페이지
- 경력 10년 이상: 최대 2페이지
- 나머지 이야기는 면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
- 핵심 성과가 즉시 눈에 띄도록 배치해야 함

핵심 하이라이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법

불필요한 경력 삭제

- 관련 없는 직무 경험은 과감히 제거함
- "3년 전 수영장 안전요원" → Google은 관심 없음
- 예외: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포함
 - "사회인으로서의 경험"을 증명하는 용도

직무·회사별 맞춤화

- 동일한 이력서를 모든 곳에 제출하지 않음
- 지원 회사와 직무에 맞게 경험을 취사선택함
- SNS 마케팅 경험 → Facebook 광고팀 지원 시 포함
- 리쿠르터가 "이 사람이 딱 맞다"고 느끼게 만들어야 함

맞춤화의 실제 사례

- **Nick의 사례:** 정부 계약업체 지원 시 이력서 상단에 "U.S. Citizen" 표기
 - 외국식 이름(Nipun Singh)에 대한 선입견을 사전에 해소함
 - 보안 인가(Top Secret Clearance) 적격자임을 어필함
- **SNS 마케팅 경험:** 이모의 레스토랑 프로모션
 - 대부분의 DS 직무에는 불필요함
 - 마케팅 분석팀 지원 시에는 큰 강점이 됨
- **핵심:** 같은 경험도 맥락에 따라 **강점 또는 잡음**이 됨

원칙 2

리쿠르터를 감동시키는 성과 정량화

리쿠르터는 비기술직 — 타깃을 명확히 해야 함

- 이력서의 1차 독자는 비기술직 리쿠르터임
- 시니어 DSL나 채용 매니저는 면접에서 만남
- 기술 약어를 풀어 설명해야 함
 - "Continuous Deep Q-Learning with Model-Based Acceleration" (X)
 - "Flappy Bird Bot Using Machine Learning" (O)
- 상대가 "그래서 뭐가 대단한 건데?"라고 묻지 않게 맥락을 제공해야 함

숫자, 크고 임팩트 있는 숫자를 쓰라

- 리쿠르터와 경영진 모두 숫자를 좋아함
- 프로젝트의 사용자 수, 조회 수를 반드시 기재함
- 기술적으로 단순한 프로젝트라도 실제 유저 메트릭이 있으면 강력함
- Nick의 RapStock.io: UI도 세련되지 않고 코드도 복잡하지 않았음
 - 그러나 월간 활성 사용자(MAU) 2,000명 달성
 - 이 숫자 하나로 수많은 면접 기회를 얻음

비즈니스 임팩트로 번역하라

달러(\$)로 말하기

- 가장 강력한 정량화 방법 = 수익 증가 또는 비용 절감액
- "\$20,000 절감 분석" vs "P vs. NP 사이드 프로젝트"
 - 리쿠르터는 전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함
- \$20,000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, P vs. NP는 추가 맥락 필요함

회사가 원하는 것

- 기업이 찾는 건 "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" 자체가 아님
- 비즈니스와 제품을 전진시키는 사람을 원함
- 과거에 실질적 가치를 창출한 사람 = 미래에도 할 것이라는 신뢰
- 데이터 사이언스는 수단, 목적은 비즈니스 성과임

리쿠르터의 내면을 읽어라

"궁극적으로 리쿠르터가 찾는 것은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, 비즈니스와 제품을 전진시킬 사람이다 — 단지 그 수단이 데이터 사이언스일 뿐이다."

원칙 3

자신을 빛나게 하는 정보만 포함하기

겸손할 필요 없음, 거짓말도 금지

- 공로가 있으면 **당당히** 기재해야 함
- 단, 거짓이나 과장은 절대 금지
 - 리쿠르터나 면접관이 대화 중 쉽게 파악함
 - 3인 팀 프로젝트를 1인 성과로 포장하면 역효과
- 기술 면접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**깊은 질문**을 반드시 함
- 원칙: **있는 그대로, 하지만 최대한 빛나게**

부정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말 것

- GPA 기재는 도움이 될 때만 해야 함
 - MIT 3.2 → 기재 가능 (명문대 가산점)
 - 무명 대학 3.2 → Google 지원 시 오히려 감점
- Google은 비타깃 대학 출신에게 **4.0**을 기대할 수 있음
- 리쿠르터에게 불리한 판단 근거를 스스로 제공하지 말아야 함

중립 정보도 해악이 됨

요약(Objective) 섹션 제거

- "열심히 일하는 분석 전문가, 2022년 가을 DS 직무 희망" → 평범하고 차별성 없음
- 이력서 최상단의 귀중한 공간을 낭비함
- 10초 안에 리쿠르터가 볼 곳을 차지해 핵심 성과를 가림
-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최선임

왜 중립 정보가 나쁜가

- 핵심 성과를 무관한 정보로 묻어버림
- 리쿠르터의 제한된 주의력을 분산시킴
- 중립 정보 = 부정적 정보와 동일한 효과
- "내가 이 사람을 면접할 이유"를 찾지 못하게 만듦

Skills/Technologies 섹션은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

- 기존 이력서 조언: ATS를 위해 키워드를 가득 채우라 → 저자들은 반대함
- 온라인 지원 자체가 비효율적(Ch.3에서 상세)이므로 ATS 맹신은 위험함
- 이력서에 적힌 모든 것은 면접에서 질문 대상이 됨
 -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ATS용으로 나열하면 면접에서 역효과
- 최대 2줄로 축소하거나, 아예 삭제할 것을 권장함

"Show, Don't Tell" — 기술은 맥락 속에서 보여줘라

- 기술 스택은 업무 경험·프로젝트 설명에 **인라인으로 포함함**
 - "Python(Django)으로 배포 도구 개발" → 도구와 성과가 한 문장에 연결됨
- 맥락 없이 나열된 기술 목록은 **증명력이 없음**
- 인라인 기술로 ATS 키워드도 자연스럽게 충족됨
- 회사들은 특정 도구 전문가가 아닌, **빠르게 학습하는 사람**을 원함
 - Facebook, Google 등 대기업은 자체 도구를 사용함

신입/대학생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

과도한 과외활동 나열

- 축구부, 피아노 레슨, National Honor Society → 대입에서는 의미 있으나 채용에서는 무가치
- ACM 미팅 참석, DS 동아리 일반 회원 → 이력서에 넣을 가치 없음
- 유의미한 기여(리더십, 성과) 가 없으면 제외할 것

오래된 정보의 취사선택

- SAT 점수, 고등학교 이름 → 대부분 불필요
- 예외 — 뛰어난 성과만 남기기:
 - SAT 2350+ (또는 1450+) → 유지
 - USAMO, ISEF, Putnam 수상 → 유지
 - NCAA 선수, 전액 장학생 → 유지
 - 명문 고등학교 졸업 → 유지

예외적 성과는 오래되어도 유지하라

- 엘리트 기업의 면접관들도 같은 학교·같은 대회 출신인 경우가 많음
- 이러한 성과는 즉각적인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함
- 오래된 정보라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 유지할 가치 있음
-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음
 - "당신에게는 브랜드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"

원칙 4

형식과 관습을 유리하게 깨기

전통적 이력서 형식은 너무 경직되어 있음

- 기존 조언: 볼드는 섹션 제목에만, 순서는 시간순으로... → **일률적 접근은 비효율적**
- 읽기 쉽게 만들어서 **10초 안에 면접 결정을 이끌어내야 함**
- Nick의 사례: 인턴 경험 기업명(Microsoft, Google)을 **다른 텍스트보다 크게 표시**
 - 리쿠르터가 훑어볼 때 즉시 인식: "Microsoft. Check. Google. Check."
- RapStock.io의 사용자 메트릭을 **볼드 처리** → 상세 설명 속에서 핵심 수치가 돋보이게 함

섹션 순서도 전략적으로 배치하라

최고의 것을 최상단에

- 교육, 경력, 프로젝트, 스킬 순서에 정해진 규칙 없음
- 영어권은 위에서 아래로 읽음 → 최고의 내용을 최상단에 배치
- 무명 대학 재학 + Uber 인턴 경험 → **경력을 맨 위로**
- MIT 재학 + 관련 인턴 경험 없음 → **학력을 맨 위로**

시간순도 깰 수 있음

- 섹션 내 항목이 반드시 시간순일 필요 없음
- Google 여름 인턴 → 작은 스타트업 파트 타임 → Google을 위에 배치
- **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핵심**
- 연대기가 아니라 **임팩트 순으로 정렬함**

마진, 폰트, 간격도 무기가 됨

- 표준 마진에 얽매이지 말고, 공간을 유리하게 조정함
- 강조할 부분에 다른 폰트 크기나 간격을 적용할 수 있음
- 단, 주의: 마진 변경으로 내용을 2배로 늘리면 안 됨
 - 원칙 3 위반 — 핵심 성과가 불필요한 정보에 묻힘
- 형식의 자유는 **가독성 향상**을 위한 것이지, 정보 과적을 위한 것이 아님

모든 규칙은 더 나은 스토리를 위해 깰 수 있음

- "관련 없는 직업은 빼라"는 앞선 원칙도 예외가 있음
- 웨이터 경험 + 음식 폐기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→ 스토리가 연결되면 포함
- 웨이터 경험 + DoorDash/Uber Eats 지원 → 업종 연관성으로 포함
- SoundCloud 링크 → 음악 해커톤 프로젝트 + Spotify 지원 시 완벽한 맥락
- 핵심: 이력서가 "나"라는 사람의 일관된 스토리를 전달하는가?

실전 해킹

이력서를 한 단계 높이는 세부 팁

이력서 기본 체크리스트

이름·이메일 강조

- 이름과 전문적 이메일을 눈에 띄게 배치
- Yahoo, Hotmail 사용 금지
-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메일 도메인도 평가 대상임

주소 삭제

- 주소를 넣으면 지역 편향에 노출됨
- 회사는 이전 비용 없는 현지 지원자를 선호함
- 불필요한 감점 요소를 제거해야 함

GitHub 링크

-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음
- GitHub 존재 자체가 오픈 개발 경험과 버전 관리 인식의 증거임
- 비기술직 리쿠르터는 정리 상태를 판별하지 못함

외부 작업물 링크

- 블로그, 해커톤 프로젝트 등에 하이퍼링크 삽입
- 클릭하지 않아도 파란 링크 자체가 "더 있다"는 신호를 줌
- 실제 세상에 공개한 결과물은 신뢰를 높임

파일 관리와 오프라인 전략

PDF 저장 원칙

- PDF로 저장 — 서식 유지 + 모바일 호환성 우수
- 파일명: "홍길동_카카오_이력서.pdf" 형태로 저장
- "Resume.pdf" → 무차별 지원 인상을 줌
- 회사별 맞춤 이력서를 관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됨

오프라인(대면) 전략

- 두꺼운 종이에 인쇄 → 촉감으로 차별화
- 채용 박람회, 커피챗, 컨퍼런스, 현장 면접에 항상 휴대
- 핸드폰으로 LinkedIn 꺼내는 것보다 종이 한 장 건네기가 훨씬 자연스러움
- 받은 사람이 Uber 기다리며, 공항에서 다시 읽게 되는 물리적 기억 장치 역할

실전 사례 분석

Nick과 Kevin의 Facebook 이력서

Nick의 이력서 — 원칙 적용 분석

원칙 1·4 적용

- 경험 섹션을 최상단에 배치 (학력보다 위)
- Google/Nest, Microsoft, CCRL 순 — **임팩트 순 정렬**
- 기업명을 강조 표시하여 훑어보기 용이하게 함
- Thomas Jefferson 고등학교, SAT 2360 → **예외적 성과라 유지**

원칙 2·3 적용

- RapStock.io: MAU 2,000명, 페이지뷰 150,000 정량화
- Alexis Ohanian(Reddit 창업자)의 추천 코멘트 포함
- PennApps: 2,000명 해커톤에서 AWS **최우수상 수상**
- 레이턴시 45초 → 80밀리초 개선 — 구체적 숫자로 성과 입증

Kevin의 이력서 — 학력 우선 배치 전략

- Wharton(경영) + Penn Engineering(CS) 이중 학위 → 학력이 최대 강점
- GPA 3.65/4.00 — 명문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점수라 기재
- 교육 섹션을 최상단에 배치 — 원칙 4(최고의 것을 위에) 적용
- Facebook, Bloomberg, Zetta Mobile 인턴 → 경력은 그 다음
- Thomas Jefferson 고등학교 + SAT 2350, AIME Qualifier → 예외적 성과 유지
- 스킬 섹션은 간결하게 1줄 — "Proficient / Familiar / Basic" 구분

두 이력서의 공통 전략

정량화

- 사용자 수, 개선율, 수상 실적을 반드시 포함
- 추상적 설명이 아닌 구체적 숫자로 증명

맥락 제공

- 기술 스택을 프로젝트 설명에 인라인 배치
- 별도 Skills 섹션은 최소화
- "무엇을 했는가"와 "어떻게 했는가"를 한 문장에 연결

예외적 성과 보존

- 고등학교 성과(SAT, 명문고)를 과감히 유지
- 오래된 정보라도 공감을 형성하는 브랜드는 남겨둠
- 공간 대비 임팩트가 높은 항목만 선별

4대 원칙 핵심 요약

원칙 1: 면접 문 열기

- 이력서 = 면접 기회 도구
- 1~2페이지, 핵심만
- 회사별 맞춤화 필수

원칙 2: 정량화

- 비기술직 리쿠르터가 타깃
- 큰 숫자, 비즈니스 임팩트
- "Show, Don't Tell"

원칙 3: 빛나는 것만

- 부정·중립 정보 제거
- Objective/Skills 삭제·축소
- 예외적 성과만 유지

원칙 4: 관습 깨기

- 볼드·크기·순서 자유
- 임팩트 순 배치
- 스토리를 위한 규칙 파괴

이력서는 당신의 10초짜리 영업 피치다

"리쿠르터가 10초 안에 '이 사람을 만나봐야겠다'고 결정하도록 설계하라. 나머지는 면접에서 보여주면 된다."